

농협, 폭염 피해 농가 5000억원 긴급지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나주 방문
과수농가·출산농가 피해 점검
피해예방·복구지원 대책 발표

이례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과수와 채소, 가축 등 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날부터 시작된 폭염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농가의 폭염 피해예방과 복구지원을 위한 무이자자금을 긴급 편성하고 임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기부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의 폭염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과수 일소피해 488ha를 비롯해 작물이 고사하는 등 농작물 총 706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가축의 경우 닭 316만6000마리, 오리 17만7000마리, 돼지 1만6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총 339만 마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9만 6000마리가 피해 대비 무려 61.73%나 피해가 큰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닭 51만 4815마리가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했으며, 오리 6만3488마리, 돼지 등 기타 가축이 1539마리가 폐사하면서 총 57만9842마리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 90만909마리와 충남 60만1460마리에 이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피해가 컸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3일 나주 폭염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피해 예방과 복구지원을 위한 범농협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이외 과수 5.7ha, 채소 1.6ha가 폭염으로 고사하는 등 농작물 피해도 7.3ha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난날 13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폭염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남을 비롯한 전국 농가의 폭염피해가 잇따르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서 농협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3일 나주지역 폭염 피해현장을 찾아 직접 피해현황을 점검한 뒤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농협이 발표한 주요 지원대책은 ▲폭염 피해예방 및 복구지원 무이자자금 5000억원 긴급 편성·지원 ▲범농협 임직원 자발적 성금 모금·기부 4억원 ▲양수기 등 관수장비 3000대·약제 및 영양제 25억원 지원 ▲면세유 4억원 추가배정 ▲농업인행복센터(대표번호 1522-5000) 평일 연장·휴일 근무 및 현장지원단 운영 ▲540개 공동방제단을 통한 축산농가 살수지원 ▲신속한 손해평가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정부와 협력해 수급불안 품목 수급안정화 추진 ▲피해농가 금리우대 등이다.

이밖에 각 농·축협에서는 폭염피해 취약농가

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생수·냉풍기를 지원하는 등 총 1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축산농가 면역증가제 긴급지원으로 1억3000만원과 발작물 피해지역 양수기 40대 공급, 도서지역 긴급 식수지원(2L) 6000개, 취약농가 인력지원 1억8000만원, 농협 전 사무소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은 추진한 상태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은 피해 농업인의 심정으로 농식품부 등 정부와 적극 협력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준비하는 등 복구지원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美·중간 협상·분쟁국면 지속

지수, 제한적 박스권 흐름 전망

국내 증시, 중국 영향력 높아

中 유동성지수 발표·증시 방향 주목

코스피지수가 2300선을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증시의 급락, 일본 및 미국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 FAANG(미국 IT를 선도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일컫는 용어) 기업의 급등락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코스닥지수는 하락폭이 컸던 제약/바이오업종이 셀트리온의 미국소송 승소와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FDA 승인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 재검리 포기가능성 보도 등으로 반등했고 남부경협주 및 사드보복 완화가능성으로 중국관련주의 상승으로 788.81pt까지 반등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FAANG 기업의 급락을 2000년 닷컴버블 시기와 비교하며 ‘제2의 닷컴버블’로 전개되는 것에 우려하는 데 FANGG 기업들의 높은 EPS증가율과 글로벌 수요증가를 고려한다면 아직은 버블우려보다는 4차산업 기업 중에서 FANGG 기업을 대체하는 구도변화에 무게를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증시는 미국보다는 중국증시 영향이 매우 커졌고 2월부터 6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중국증시 방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8월 1일 이후 중국증시는 4.96% 급락하며 2740.44pt 포인트로 7월초 저점에 근접하였다.

지난주 중국증시 하락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2000억불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높인 것도 있지만 미국 상무부에서 안보위험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중국 주요기업 44개(보완, 항공, 국방 등 IT업체가 대부분)가 포함됐으며 이 리스트에 포함되면 미국에서 영업/수출/기술이전 등이 동결되어 향후 미국영업에 대한 위축가능성이 부각됐다.

둘째 기대를 모았던 정치국회의(31일)에서 선제적인 재정정책과 인프라투자 확대를 강조했지만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부동산 매입 및 매도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및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구 및 유통업체의 추가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원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1 중국의 수입물품 관세인하 2 무역적자해소(미국 수입품 확대) 3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지적재산권 제재 강화 4 외국기업의 중국과 합작기업에서 기술이전 등을 강요하는 형태 개선 5 중국제조 2025의 10대 주력기업에 대한 첨단보조금 축소(폐지) 등이랄 수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번주의 경우 7일 중국 외환보유액 및 8일 7월 수출입지표 등 유동성지표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중국위안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외환보유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정책만으로 중국시장의 추세적 변화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위안화의 추세적 변화가 확인되어야 한다. 미중무역분쟁과 위안화상승에도 중국 단기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시스템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므로 이번주는 낙폭확대에 따른 반등을 기대해 본다.

이번주에도 미·중간 협상과 분쟁국면이 이어지면서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며 대외변수와 개별기업의 재료에 따라 일종별 종목별 순환매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광주 평동농협 ‘찾아가는 여성 영농인 상담’

광주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은 5일 지역 여성영농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한 ‘농협 이동상담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협이동상담실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반법률상식, 소비자 상품구매피해, 전자사기 금융 등 각종 고민을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와 상담을 통해 방안을 제시해주는 현장 위주의

농업인 실익사업이다.

이날 평동농협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박영서 차장을 초청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주제로 ‘농업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한국정보통신진흥회 전종현 부소장이 강사로 나서 ‘개인정보 보호·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과 대처요령’에 대한 강의도 열렸다. /박기용 기자 pboxer@

무더위에 소화 돕고 식욕 돋우는 ‘애호박’

aT ‘이달의 제철농수산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5일 이달의 제철농수산물로 소화기관에 도움이 되고 무더위에 식욕을 유지시켜주는 애호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주로 유통되는 호박은 애호박·쭈기나·단호박·늪은호박이 있는데 가장 흔한 종류인 애호박은 당질과 비타민A와 C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호박은 쉽게 소화되는 농산물로 위궤양 환자나 회복기 환자도 편히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의 이유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 또 다량 함유된 아연 성분은 신체 저항력을 높여주고 식욕을 유지시켜 준다.

aT에 따르면 좋은 애호박을 고르는 방법으로 표면이 고르고 흠집이 없으며 꼭지가 싱싱한 것이 좋다. 또 표면을 눌렀을 때 탄탄한느



겉이 들어야하며 반으로 잘랐을 때 씨앗이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상품이다.

애호박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쉽게 물러질 수 있어 표면에 물기를 없애고 흡수력이 좋은 종이 또는 신문지에 싸서 보관해야 한다. 애호박을 건조해서 보관하려면 원형이나 한 입 크기로 얇게 썰어 그늘진 곳에서 말리면 된다. 말린 애호박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조리 시 물에 불려 나물요리를 할 수도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 종합특수방수

광주 전남 H.P 010-6603-0405

목포 여수 순천 광양

061-284-0485 061-683-0485 061-726-0482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안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창사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